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회 정기연주회 <17, 그리고 꿈>

201st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7, 그리고 꿈

“Mit 17 hat man noch Träume”
“열일곱에는 아직 꿈이 있다네”

2017.4.27 THU 8PM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구자범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고레츠키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3악장
Górecki
Symphony No. 3, Op.36
'Symphony of Sorrowful Songs' Mvt.3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랑고르 교향곡 1번 '벼랑의 목가'
Langgaard
Symphony No. 1 'Klippen-Pastorale'
(아시아 초연)

프로그램

- 고레츠키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 랑고르 교향곡 1번 '벼랑의 목가'

출연진

- 지휘 구자범
- 협연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6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 C석 1만원 할 인 조기예매 20% (3월 27일까지 R,S,A,B석), 초중고대학생 20%, 10인이상 단체 20%
예매처 인티파크 티켓 1544-1555 www.ticketpark.com YES24.COM 공연 1544-6399 ticket.yes24.com
주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2-523-6258 www.koreansymphony.co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코심콘서트강의 | 8PM
강의 김호영(피아노) 기예

이 프로그램 및 연주자는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개요

공연명 코리안심포니 201회 정기연주회

[Mit 17 hat man noch Träume : 열일곱엔 아직 꿈이 있다네]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저녁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구자범

협연 김선정(메조소프라노)

[프로그램]

고레츠키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3악장(메조소프라노 김선정)(20분)

랑고르 교향곡 1번 '벼랑의 목가'(아시아 초연)(60분)

*인터미션 없습니다.

17. 그리고 꿈

프로그램 소개

현대음악 장르로는 이례적인 인기,
빌보드 차트 **38주 연속 1위**
(*워싱턴 포스트*)

고레츠키 교향곡 제3번 '슬픔의 노래'는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폴란드 국민들의 영혼을 위한 곡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겪어야 했던 어머니의 슬픔을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의 한국어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19여 분에 달하는 3악장의 선연한 멜로디는, 17살 유대인 소녀가 가스실로 끌려가기 전 죽음을 맞이하며 부르는 2악장의 한맺힌 탄식에 대한 화답입니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한 폴란드 어머니의 절규와 탄식, 그리고 슬픔의 승화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열일곱 살 소년이 벼랑 끝에 서서 삶
의 용기를 노래하다

랑고르의 교향곡 1번 '벼랑의 목가'는 덴마크 작곡가 랑고르가 17세 때 작곡한 곡으로, 산자락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곡입니다.

17세의 젊은 천재 작곡가가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그 처연한 꿈을 음악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휘자 구자범



한국에서 철학과 졸업
독일에서 지휘과 졸업
하노버 등 독일의 여러 오페라극장에서 지휘
경기필 등 한국의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지휘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독일 여러지역 시립극장 오페라 주역.
국내 오페라단(국립,시립,성남,예술의 전당 등)에서
오페라 주역,
여러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과 오라토리오
연주 및 협연.
현재 전문 연주가로 활동 및 한예종 출강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창단 이래 지난 30여년간 국내외에서 매년 90회 이상 연주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교향악의 위상을 높여 왔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7년부터 국립극장과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의 정규 레퍼토리에 협업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지정되어 예술의전당에 자리 잡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이로써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위한 전문적인 하우스 오케스트라로서 발레, 오페라 음악에 남다른 전문공연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발레, 오페라 연주는 연간 40회 이상이며 매년 새로운 레퍼토리를 확장·확보해 가며 발레, 오페라 음악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관현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연주단체로 정기연주회와 특별기획연주회에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을 주 무대로 연주하고 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법인 승인,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받았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면서 민·관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약 100명의 임직원과 연주단원들이 2명의 상주작곡가와 함께 한국 공연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악대학 학생 특별할인

음악대학 학생 할인 : 10장 이상 구매시 S·A 50% 특별할인

각 대학 공연관람인원 파악 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연락주시시오(전화 or 메일)
입금 확인 후, 티켓 준비해드립니다(입금마감: 4월 20일 목요일까지)

- 계좌: 우리은행 414-309694-13-002
- 문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기획팀 하가영 T. 02.523.6258 , E. hakayoung4353@gmail.com

구분	S석	A석	비고
정상가	40,000	30,000	10장 이상 구매시, 할인적용 가능
할인율	50%	50%	
할인가	20,000	15,000	

감사합니다.

Contact Point

코리안심포니 공연기획팀 **하가 영**

T. 02.523.6258

E. hakayoung4353@gmail.com

www.koreansymphony.com